

제 53 호

대림 제 1 주일
(그리스도 왕 축일)

1973. 12. 2

숲정 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새로운 몸부림

조 성 호

[말 씀]

숲정이의 창간이 어제였던 것 같았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주교님을 비롯한 교구내 제위 신부님들과, 교형 자매 여러분의 성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 드리게 된 영광을 갖는 감회 실로 큼니다. 지나온 1년이 어쩌도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생각하면 벌써 그리되었는가 하는 시간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떨기도 했지만, 매스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지라 그러한 걱정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낸 일이 실패작을 만들어 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여러분들께 죄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창간 1주년을 기해서 다시한번 숲정이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는 현대인들이라 특별히, 틈을 내고 정력을 쏟아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성의가 없다고 해서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단한 팜플렛 형식으로 만들어 지는 숲정이는 더욱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강론, 교리해설, 기타 논설들이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평신도의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뜻 있는 평신도들이나 신부님들의 의견이 교류되는 것은 했지만, 저 밑바닥의 소리는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어 남을 헐뜯자는 것도 아닌 전만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나누는 의견이 오해를 받아서도 안되고, 심중에 불만으로 누적되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서서는 더욱 안되겠습니다.

셋째는 일치에 햇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하나를 부르짖으면서도 너무나들 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일치하는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일치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때일수록 일치는 더욱 필요합니다. 사회정의와 평화를 위한 신봉이 되어야 할 우리이지만, 우리는 그간 무엇을 했습니까?

아쉬운대로 전주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숲정이가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자세로 탈바꿈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두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지 주관, 교구 사목협의회 회장)

이주일의 미사

□임당송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뵈나이다. 내 하느님께 굳이 바라오니, 이 바람을 헛되이 마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두고 좋아라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차는 부끄러울리 없으리이다.

□제1독서 (에레미야 33 : 14-16)
다윗에게 의로운 후예를 싹뜨게 하리라.

□찬미송 ◎주여 내 영혼에 당신을 우러러 뵈나이다.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은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만을 견게 하시고, 그 가르치심을 내게 주소서. ◎

□제2독서 (테살로니카 전서 3 : 12-4 : 12, 성서 P. 467)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루가 21 : 25-28, 34-36, 성서 P. 189)
너희 구원이 가까왔다.

□신자들의 기도

1.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주여, 당신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비오니,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당신의 내림을 즐거이 맞이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 주여, 당신의 숲정이가 이제 만 한살이 되었습니까. 그간 혹시라도 당신께 누를 끼친 일이 있으면 너그러이 용서하소서. 잘 해보려고 한 일이었지만, 혹시라도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까. 하지만, 악의는 없었아오니 용서하소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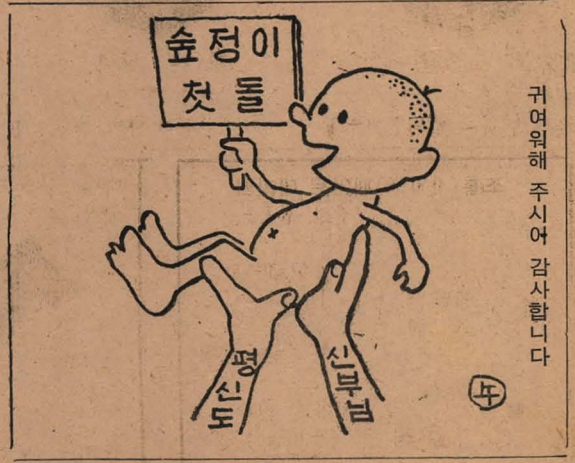
3.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여, 숲정이가 전리의 성신과 항상 일치하여 계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주여,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어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 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대림절 감사송

□영성체송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 숲정 이 산책 *



귀여워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대화의 광장□

□잔디밭□

□축 송(祝頌)□

성모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김 영 구 신부

마리아여,

당신은 원죄에 물들음이 없이
완전히 아름다우시나이다.

당신의 웃은 눈처럼 희고,

당신의 얼굴은 태양같이 눈부시나이다.

당신은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큰 기쁨

우리 겨레의 큰 자랑이시나이다.

원죄 없으신 동정녀여 우리를 이끄소서

당신 성덕의 향기를 마르리이다.

마리아여,

당신은 의덕의 태양, 우리 주 그리스도를 낳으셨으니,

우리 모두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진주시 교동 1가312-4)

□창간 1주년 기념행사□

퀴즈 놀이 (1)

순정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나로 우선 여러분들의 순정이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로 사기를 더욱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제 ■

1. 그간 순정이 편집 과정 가운데 가장 큰 오자(誤字)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한가지만 적으시오.
2. 그간 만평 <순정이 산책>은 몇회나 게재 되었는가요?
3. 새로운 <순정이>를 위해서 한 말씀만 적어 주세요

○ 방 법 ○

1. 문제의 범위는 순정이 52호까지 입니다.
2. 문제의 답을 관계엽서에 적어 매주 금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진주시 진북동, 해성중학교내 한상갑)

☆ 시 상 ☆

바른 대답을 보내 주신 분을 추첨하여 순정이 56호에 발표하고, 성탄절에 기념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주 의 ◆

1. 이 퀴즈는 앞으로 두 번 더 계속됩니다. 세 번 모두 추첨되는 분에게는 특별한 기념품을 드리겠습니다.
2. 문제 3번의 답에 빠진 엽서는 추첨에서 제외하겠습니다.

□ 편집실 개방 □

만평 및 만화

편 집

인 쇄



김 병 오(그레고리오)
진주 해성 중·고 교사
진주지구 선교분과위원장



한 상 갑(바오로)
진주해성 중·고 교사
교구 사목협의회 총무처장



유 용 군
보 광 출 판 사
상 무

요십이를 데리고
산책을 즐기시는
김병오 님,
마감 시간 독촉에
진담을 빼는
편집자,
미사시간 대기애
등골이 서늘하시다는
유상무님을 한자리에...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결 전문)

대 동 페인트 상 사 }
 치 물 } 고급벽지
 } 비닐장판
 } 하드보드
 } 각종페인트

● 동문 사거리 전화 5986
임 정 원 (도민고)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렉스 V 래트프

(입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7692(진북동 어은골)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6794
이 현 주(메테사) 올림

□ 양 지 쪽 □

돌 맞 이



잘 꾸며진 상(床)의 앞부분에는 음식이 아닌 것들이 널려져 있다. 타래실, 연필이나 책, 돈, 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겨우 일어섰다 앉았다 할 정도의 꼬마를 둘러싸고 온 식구들이 둘러 앉아 화기에 애하다. 그러한 그들은 모두 그 꼬마의 손끝을 주시하는 것이다. 금방 넘어질듯한 걸음으로 돌격 한 꼬마가 무엇을 그 상에서 집어내느냐가 어른들에게 큰 관심인 것이다.

타래실을 집어들면 명이 길고, 연필이나 책을 쥐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돈이나 쌀을 움켜쥐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돌잔치의 풍경이다. 돌잔치를 구경해 본 적이 하도 오래여서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술정이가 선을 뵈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지난 해 장림 첫 주일 (12월 3일)에 창간호를 낸 뒤, 올해 장림 첫 주일을 맞은 것이다. 그간 국내의 정세가 너무나 격심하게 변하고 보니 버려질 생각이 다 든다. 길가에 바짝 쪼그리고 앉아서 새가 물어다 주는 자기의 운명을 기다리는 쇠누렇게 뜬 아줌마의 얼굴이 자주 떠오르는가 하면, 짙통에 꽂혀 있는 뱀가지를 집어내는 맥빠진 젊은이의 얼굴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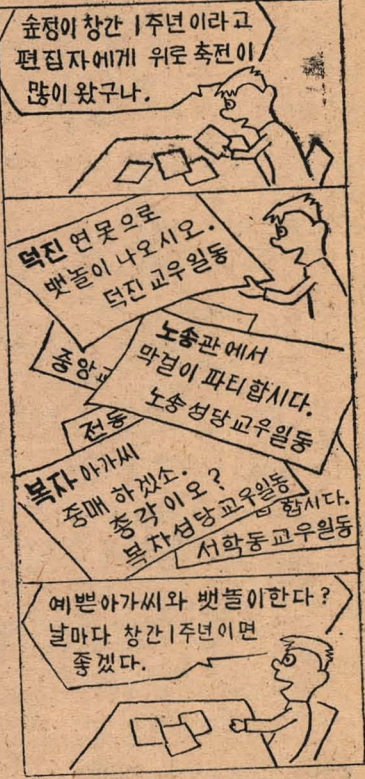
아랍의 쿿깅에 전세계가 한기를 느끼는가 하면, 장관 대신에 실장의 목이 날아가고, 구국기도회가 열리고 해서 당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시절이 하 수상하니 돌잔치라고 벌일 수도 없고 회회낙락할 틈도 없다. 다만 걱정스러울 뿐이다.

<복음 선포의 길잡이>가 되라고 격려해 주신 주교님의 축사나, 자기 성장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다짐했던 발행인 신부님의 장간사를 다시 살펴 보니 부끄러움만 앞설 따름이다.

그간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제법 번모도 가져 보았었다. 글보다 빨리 감정을 전할 수 있는 만평을 통해 말없이 <산책>도 해 보았고, <요셉이>가 천없이(?) 울기도 했으며, 고십란이 <소리>도 질러 보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는 이때에 무엇을 술정이가 했고, 또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다만 부끄러울 뿐이고, 여러분의 도움을 빌 뿐이다. 포근한 양지쪽이 좋은 계절인데... (갑)

요셉이 (20) 김병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진량, 총무 안지은, 전화 ③3498)

- 4(화) 7시반.....성경교실
- 6(목) //지성인 교리
- 7(금) 8시.....레크레이션(주최:기톨릭센터와J.O.C)
- 외국 문화 교실
-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 독어-Heideros.....화, 목요일 6시
- Morgentau.....월, 수요일 6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 성 바오로 서원 *

(전화 ⑦ 3 9 8)

* 이 주간의 성경 *

- 3(월) ▲ 성프란치스코 사베리오 포교 사업의 수호자
독서 (로 마 10: 10-18, 성서 P. 357)
복음 (마르코 16: 15-18, 성서 P. 120)
- 4(화) 독서 (로 마 14: 1-12, 성서 P. 364)
복음 (루 가 10: 21-24, 성서 P. 156)
- 5(수) 독서 (로 마 14: 13-23, 성서 P. 365)
복음 (마태오 15: 29-37, 성서 P. 37)
- 6(목) 독서 (로 마 15: 1-6, 성서 P. 366)
복음 (마태오 7: 24-27, 성서 P. 15)
- 7(금) 독서 (로 마 15: 7-13, 성서 P. 366)
복음 (마태오 9: 27-31, 성서 P. 20)
- 8(토) ▲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독서 (에페소 1: 3-6, 11-12, 성서 P. 437)
복음 (루 가 1: 26-38, 성서 P. 122)

일본어(日本語)교수

기초부터 회화·번역까지
(12월 1일 개강)

●전동1가 200의1 (전화 ③ 3222)

장복만(요셉)

고급잡집. 경쾌한음악. 냉온방시설

(신장개업)

새로운

남문다실

남문여관 지하실 직통 ③ 4881

교환 ③ 2169 5017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남샤프 (T V)
냉장고
석유스토브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③ 8121

여요셉(윤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소)

1. 덕진 본당 성년 행사 연기 (12월 5일 <수>, 오후 7시부터)

(식)

2. 전주지구 아동부 제2차 성가 경연대회

합창부 특상 중앙, 우수상 노송동, 덕진, 장려상 북자
독창부 특상 박 순화(북자), 우수상 김 태선(중앙), 장려상 이 미경(노송동), 한 미숙(중앙)

(중양)

(전화 @2651) 주임 신부 안복진
(@3874) 사도 회장 이복석

1. 혼배 조당자 모임 (오늘 밤 8시반, 사제관)
조당을 풀어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오시어 신부님과 상의해 주십시오.
2. 성년 행사 은혜에 감사 (11. 26)
1,200여명이나 성사 보셨습니다. 더욱 분발합니다.
3. 성가 경연 대회에서 우승 (11. 25)
제4지구 아동부 성가 경연대회에서 우승 했습니다.
4. 성심 부녀회 (7일 <금> 어머니 미사후)
5.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은 물론 고문 전원 참석 바람
□교무금 수입액 2,730,750원 (87%)
지난 주일 봉헌금 32,634원, 감사합니다.

(북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유아 세례 (4일 <화> 오전 10시)
3. 사제 양성 후원비를 미루지 맙시다.
4. 교무금 납부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지난 주 성미 3말 5되 (누계 222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3,424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신용조합 월례회 (다음 주일)
3. 공소 가을 판공 성사 (당일 10반에 공소 도착)
4(화)...신원리, 5(수)...장정리, 6(목)...다리리
7(금)...황운리
4. 본당 교우 가운데 성사 못보신 분은 다음 날짜에
22(토) 오전 10시-12시...남노송동
23(일) 오후 3-5시반...중노 1가, 2가
24(월) 오후 8시-10시...인후동, 우아동
□지난 주일 봉헌금 14,68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최상익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미사후)
상임 위원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가을 공소 판공
3(월)...내어두리 4(화)...외어두리, 석장리
6(목)...서당리, 내정리, 북재, 7(금)...신원리, 백암리
8(토)...신리 10(월)...의암리, 마치리
12(수)...양생동 13(목)...우엄며 14(금)...마음리
※ 9(일)...상관 성년 행사 (장사: 박진량 신부)
□지난 주일 봉헌금 11,9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중환

1. 성년 행사일 연기 (12월 5일 <수> 로)
광주 대교구장 착좌식 때문에 가을 판공이 연기되었
아오니 5일에 공소 교우까지도 모두 성사 됩니다.
2. 신용조합 재교육 (장사 지정환 신부)
① 대상...예비조합원 및 현조합원
② 일시...오늘 공식 미사후
3~4일 오후 7시반(미사는 오전 6시반)
3. 신용조합 임원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후)
4. 학생 동계 미화작업 (오늘 공식 미사후)
★ 축결혼 ★ (7일 <금> 오전 11시)
김 재덕군과 김 옥희양
□지난 주일 봉헌금 7,125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밤 미사후)
임원은 물론 구역장, 반장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판공 성사 못 보신 분은 미사전후에
3. 성탄 영세자 특별 교리
12월 5일(수), 8일(토) 저녁 미사후
□교무금 수입 현황 2,398,400원 (55%)
지난 주일 봉헌금 33,342원, 감사합니다.

숲정이 창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전주 시내 6개 본당 사도 회장단

여러분들의 따뜻한 돌보심 가운데 창간 1주년을 맞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숲정이 편집실



◎성년 행사가 곳곳에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흐뭇
한 소식이 계속 전해 지고
있다.

신부님들의 몸을 돌보시지
않는 노력이 큰 수확으로 나
타나고 있는 것이다. 20년가
까이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

지 못한 분들이 고백성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과 일치
를 이루고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보통으로, 여러 날을 두고 치루던 판공성사 때에도
800명 남짓하게 성사에 임하던 숫자가 1200으로 늘어나
는 힘이 무엇일까? 이는 우리가 열심히 쫓 때 성신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리라,

우리 모두 노력할 때, 내 가정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평화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